

◆ 會員社 動靜 ◆

LG電線(株), 배전용케이블 日本에 수출

LG電線(株)(代表:權炆久)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日本의 전력 공급 회사에 배전용 케이블을 수출한다.

LG전선은 최근 일본 최대의 전력회사인 東京電力(TEPCO)과 1년 동안 100만달러 규모의 중저압 배전용케이블(600V급)을 공급키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배전용 케이블은 변전소로부터 빌딩·수용가까지 전력을 공급하는 인입선으로 주로 1000V나 600V를 사용한다.

동경전력에 대한 이같은 계약은 일본이 스미토모, 히타치, 후루가와 등 세계적인 전선업체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이루어 졌다는 점에서 수출을 LG전선이 기술과 가격면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LG전선은 앞으로 1년동안 4회에 걸쳐 동경전력청에 공급할 예정인데 이번 수출을 계기로 일본 내 다른 전력회사까지 수출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고압용 架空送電線과 다른 기기용전선까지 일본 수출을 전개할 방침이다.

大韓電線(株), 인도合作社 본격가동

大韓電線(株)(代表:兪彩濬)가 인도 바달공단에 합작으로 세운 TDT코너社가 오는 7월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있다. TDT코너社는 가동도 하기전에 이미 현지 전선업체들로부터 생산제품을 쓰겠다는 확약을 받아 놓았는가 하면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등 사업전망까지 밝아 인도 투자성공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전선은 지금까지 인도에 수출해온 제품이 우수한데다 전선분야에서 기술과 품질력을 갖춘 한국기업이 현지에서 공급하게 됐다는 점에서 현지 거래선 및 동종업계 경쟁사들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경제개발을 위한 전원확보등을 비롯 인프라분야에 남다른 열의를 보이고 있는 인도정부 측도 인프라사업 장치기업으로서 TDT코너社의 사업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TDT코퍼社가 생산하게 될 제품은 전선용 원자재인 8mm 동선(동롯드)이다. 대한전선이 지금까지 인도 케이블업체에 연간 7천만달러어치를 수출해온 제품이다.

TDT코퍼社는 이 현지공장에서 1차년도 매출 목표를 1억달러로 잡고 생산물량이 나오는 대로 현지 전선업체에 공급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전선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향후 시장성도 양호해 매출목표 달성이 무난하다는 것이 TDT코퍼社측의 예상이다.

현재 인도의 동선수요는 10~12만톤에 이르고 있으나 현지 생산공급량은 5만 4천톤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게다가 향후 전력사업확충으로 수요량이 이보다 훨씬 많아질 전망이지만 인도의 기존 2개社의 연간 생산량은 5만톤에 머물러 외국산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TDT코퍼社는 63.5%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한전선을 비롯 일본의 도멘社, 인도의 델톤케이블社 등 3개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인도 최초의 3개국 합작기업이다.

대한전선은 이 현지공장에 기술수출과 함께 20여년간 축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생산에 주력하고 日本의 종합상사인 도멘社는 원자재인 전기동의 수배 및 공급을 맡게 된다.

(株)眞光, 첨단 설비 공장 준공

(株)眞光(代表:金光宇)이 경기도 용인군에 첨단 설비로 가득찬 새공장을 7년간 고투 끝에 마련, 제 2의 도약을 위해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89년 6월 총자금 2억여원에 오직 의지에 찬 종업원 10여명으로 시작한 배전선로용 개폐기전문업체가 이제는 총 매출액만도 2백억원을 바라보고 있고 각종 기술력에서도 단연 앞서가는 등 배전선로선진화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진광은 원래 수원시권선구 원천동에 조그마한 공장을 세들어 시작되었다.

89년 10월에는 한국전력공사에 출입업체로 등록하고 90년 1월에 가스절연부하개폐기를 순수자체기술력으로 개발에 성공하여 한전에 납품을 시작했다. 틀이잡힌 94년에는 세계화추세에 발맞추어 국제품질인증인 ISO 9002를 획득했고, 95년 5월에는 과학기술처장관으로부터 국산신기술인증마크인 KT마크를 획득했고, 10월에는 우수모범기업상을 수상했다.

같은해 12월 통상산업부장관으로부터 우수개발업체 표창을 수여받았으며 올 2월에는 ISO 9001 인증을 획득했고 3월에는 韓電과 1백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진광의 최근 매출액 규모는 '93년 42억, '94년 1백7억, '95년은 1백 22억원을 달성했고, 올해는 영업전망이 순조롭기 때문에 2백억원 이상의 매출이 가능하리라 전망하고 있다.

진광은 매출규모가 급성장함에 따라 94년 11월에 지금의 용인군 남사면 복리에 1만평의 새공장 부지를 마련했고 공장건설활동에 박차를 가해 지난 2월초이전을 완료했고, 제반인허가 승인사항을 모두 완료했다.

공장 9백평, 연구소 9백30평, 기숙사 4백10평으로 총 건평 2천2백40평이며 총투자액 60억원, 설비 10억원이 소요됐다.

진광은 이 공장의 가동을 계기로 세계를 향한 제2의 도약을 다짐하고 있으며, 세계무역 구조의 변화와 국내시장의 협소함을 감안, 개폐기전문업체로서 세계시장을 공략할 각종 노력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株)東亞電機, 「동아 일렉콤」으로 변경

통신용 전원장치 제조업체인 (주)동아전기는 20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동아일렉콤으로 이름을 변경하고, 새로운 회사심벌을 제정했다.

일렉콤(ELECOMM)이 ELECTRIC·ELECTRONIC과 COMMUNICATION의 합성어로 2000년대의 새로운 산업환경에 대처한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전원전문 기술자와 석학을 초청, 연구활동과 기술교류를 하게 될 전원연구소 기공식도 거행했다. 이 연구소는 대지 2만평, 건평 5천평 규모로 내년말 완공된다.

동아일렉콤은 종업원 3백여명에 연매출 4백50억원으로 그동안 대통령산업포장, 산업평화대상, 조세의 날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李健洙회장은 『제품과 기술수출을 위해 중국-베트남-인도와 합작연구소 및 합작회사를 추진중』이라며 『현재 ATM교환기용 전원장치, 이동통신용 전원장치, 전원집중 관리시스템 같은 새로운 품목을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三和技研(株), EOCR-3DD 개발 시판

전자식과전류 보호계전기 전문생산업체인 三和技研(代表:金仁錫)이 최근 기존 제품에 첨단기능을 새롭게 부가한 EOCR-3DD를 개발, 시판에 나섰다.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전환한 이 제품은 보호기능 외에 감시기능을 첨가, 모터보호계전기에 관한한 최종결정판으로 업계에서는 평가하고 있다.

이 제품은 과부하보호, 결상보호, 역상보호, 상불평형보호, 구속보호, 단락보호 등의 기본적인 기능과 삼상전류의 표시가 가능하고 모터의 부하율 체크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고장시 즉시 고장원인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어 고장의 사전예방 및 고장에 따른 복구시간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世和金屬, ISO 9002 인증 획득

부산시 사상구 감전동 955-13 소재 世和金屬(代表:白承烈)이 ISO 9002 인증을 획득했다.

세화금속은 銅 버스바를 전문생산하는 중소기업체로 KS 인증허가에 이어 95년에는 공업진흥청으로부터 “세계일류화 중소기업 지도대상” 업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15년간 동버스바 등 비철금속 소재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에 몰두해온 동사는 국내 중전기 산업분야의 고급 소재공급에 우수한 실적을 쌓아왔으며 금번 한국화학시험연구원으로부터 ISO 9002 인증을 획득함에 따라 중소기업으로서는 드물게 경영품질을 드높이게 되었다.

동사는 이번 인증획득을 계기로 전사원이 품질경영 제고를 위해 더욱 매진하고 동 버스바 전문업체로서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계획이다.